1

대한민국의 선진IT기술 알린 캐나다 Wireless & Mobile World Expo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2005 Wireless & Mobile World Expo' 열려

협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의 NTC(National Trade Center)에서 개최된 '2005 Wireless & Mobile World Expo'에 한국 KOVA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번 Expo는 캐나다 현지의 모바일(Mobile) 및 무선(Wireless)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CISCO, ORACLE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전시장에서 즉석으로 바이어 상담을 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다. 올해가 2회째 맞는 행사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현지기업의 CEO, CTO, CIO, COO들이며 즉석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는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모바일, 무선장비 및 솔루션 기술 보유한 국내 12개 기업 참여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100여 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12개 국내 IT기업들이 협회가 마련한 한국 KOVA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 및 협상을 벌였다. 또한 이번 Expo에서는 무선네트워크 및 모바일 관련 국제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어 북미지역의 IT시장 상황을 알아보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PDA, Mobile Handsets, Smartphone 등 모바일 기술 및 무선보안솔루션, Bluetooth 장비, Wireless Broadband, RFID, ZigBee 장비, Voice over WLAN 등 전시회의 명칭에 걸맞는 다양한 모바일 및 무선장비와 솔루션이 선보였다.

캐나다 현지기업들과 Expo 참가한 국내기업간 60여 건의 현장미팅 진행돼

특히, 이번 전시회 일정에 맞춰 INKE 토론토지부(의장 웨인 김)는 캐나다 현지기업들을 섭외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과 사전 매칭작업을 거쳐 60여 건의 현장미팅을 진행시켰다. 협회 및 INKE측은 현장미팅에서 양국의 기업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지속적인 협상 지원이 있을 것이라면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 KOVA관 선진기술, 현지 기업인들에게 주목받아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Expo는 북미지역의 모바일 및 무선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한국 KOVA관이 경쟁력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여 특히 주목을 받았다"며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IT기업들을 격려했다.

Expo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은 듀얼로(Dualro, 대표 장원혁), 씨코드(Seecode, 대표 홍석남), 엠피디(MPD, 대표 이상근), 알앤비소프트웨

2

3

4

5

어(RnB Software, 대표 강응호), 모비언스(Mobience, 대표 안재우), 미래텔레콤(Mirae Telecom, 대표 고재권), 에이엔드시스템(AEND System, 대표 김준규), 오픈브이알(OpenVR, 대표 박성주), 에이팩(Apack, 대표 송규섭), 코모텍(Comotech, 대표 김상헌), 디디오넷(DideoNet, 대표 강용일), 이나루T&T(Enaru T&T, 대표 배희숙) 등 12개 하이테크 기업이 참여했으며, 각각의 독특한 선진 IT기술로 비즈니스를 위해 찾은 전문 관람객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다.

전시 참가기업 중 캐나다 현지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인 미래텔레콤 고재권 대표는 "지난 3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TELEXPO2005'에 참가해서 22억원 상당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회가 주관한 미션에 참가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면서 "이번 전시회에 참석해서도 많은 현지기업인들이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대표는 "앞으로도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런 국제적인 Expo에 많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IT기술을 알리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참관 소감을 피력했다.

캐나다 정부 및 현지 언론사도 국내 IT기업들의 선진기술에 대해 호평 쏟아내

일례로 Bluetooth 무선장비 업체인 씨코드의 경우 씨코드 미주법인 말보(Malbo)지부장이 캐나다에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City TV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INKE 출범 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던 캐나다 연방정부 Industry Canada의 마고 모린(Margo Morin) Executive Director(차관급)가 캐나다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부응하듯 글로벌 기업인 Bell Canada와 Telus 및 Rogers 등이 국내 3G, CDMA 기업들에 대한 소개와 연결을 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미래텔레콤은 Expo를 통해 현지에서 독점계약을 통해 판매를 맡겠다는 업체만 8개 기업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제휴 등의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참가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1 한국 KOVA관에 몰려든 현지 기업인 및 바이어들
2 2005 Wireless & Mobile World Expo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미래텔레콤
3 대학생 창업기업인 듀얼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지기업인들
4 캐나다 현지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에 60여건의 현장미팅이 이루어졌다
5 2005 Wireless & Mobile World Expo 전경